

# 매일 만나

2023. 3.

시편, 히브리서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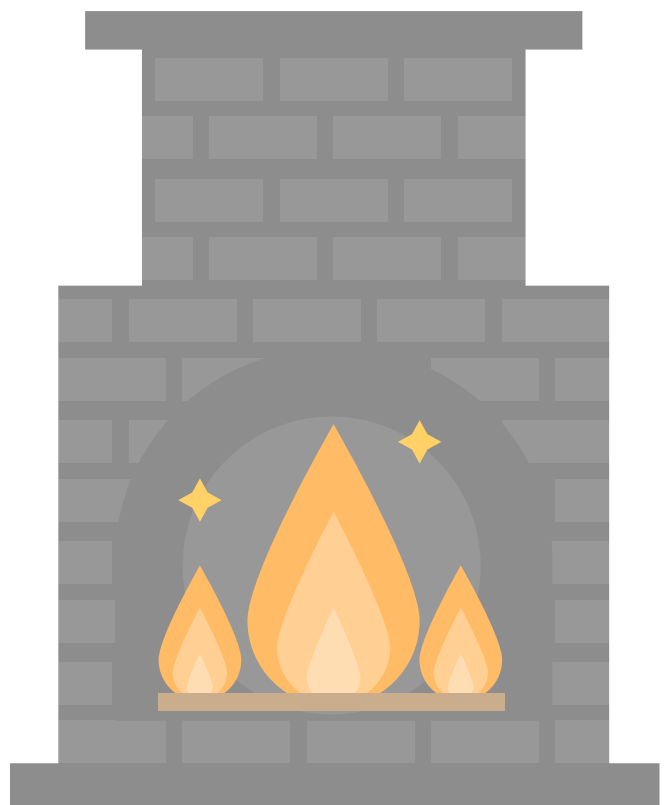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 3

## 2023 MAR

5 <small>11</small>	6	7	8 <small>14</small>	9	10	11
12	13	14	15 <small>15</small>	16	17	18
19 <small>19</small>	20	21	22 <small>23</small>	23	24	25
26	27	28				

주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 5

2.14

전반기 세제교육 개강  
전반기 제2교육 개강  
16-19대전도회 헌신예배

### 12

2.21

권사회 - 전도회 연합원례회

### 19

2.28

세가족부 월례회

### 26

윤 2.5

세가족 수료식 / 정기당회  
세례문답주간 26일(주일) - 1일(토)

### 6

경칩

자녀를 위한 20비전 특세  
6일(월) - 31일(금)

### 13

2.22

### 20

윤 2.9

### 27

윤 2.6

### 7

2.16

호스피스 집중사역주간  
14일(화) - 17일(금)

### 21

윤 2.7

순분  
연합중보기도

### 28

윤 2.7

### 1

삼일절  
전교인 새벽성찬  
장권안 연합기도회

### 8

2.17

삼공의 날  
3-15의거기념일  
불학기 사무엘아기학교 개강

### 22

윤 2.1

### 29

윤 2.8

장권안 연합기도회

### 2

2.11

### 9

2.18

불학기 늘푸른대학 개강  
마더와이즈 개강

### 16

2.25

### 23

윤 2.2

### 30

윤 2.9

### 3

납세자의 날

### 10

2.19

### 17

2.26

### 24

윤 2.3

### 31

윤 2.10

교구별 연합구역예배

### 4

2.13

제2차 자연심방

### 11

2.20

불학기 파이디몬토요일학교 개강

### 18

2.27

교회환경미화의 날

### 25

윤 2.4



## *Holy Bible survey*

# 시편

### 1. 특성

시편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묵상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의 이야기체 문학인 오경과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보여 주며 예언서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편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인이라는 사람들의 응답에 해당된다.

### 2. 구조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 시편 배열에 어떤 일관성 있는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럴드 월슨은 (1)저자의 이름, (2)고대 장르의 이름, (3)용도에 대한 지시사항 그리고 (4)특정 시편의 역사적 배경설명 등이 시편의 전체적 구조를 짜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찾아내고 있다.

#### (1) 제1권

제1권은 엄밀하게 시편 3편으로 시작하여 41편으로 마친다. 토라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관문이다. 제왕시인 시편 2편은 시편 전반부를 짜는데 72편, 89편의 서론으로 주어졌다. 제1권은 첫 여호와 시편으로, 주로 다윗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다윗의 시들은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표제에 소개된다. 3편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편' 7편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18편은 '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한 노래',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소개되어 있다. 표제에 담긴 역사적 배경이 시편 자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표제는 첫 해석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제에 나타난 배경은 시편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 *Holy Bible survey*

# 히브리서

### 1. 저자와 기록 시기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이 없다. 저자는 독자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독자들 역시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5:11-12, 6:10, 10:32-34, 13:23-24). 하지만 이 책이 널리 회람되는 사이에, 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졌다. 이 책의 저자에 관한 교부 전승은 초기부터 견해가 나뉘어져 있었다. 동방 교회는 이 책에 담긴 신학 사상의 유래를 바울로 보았지만, 저는 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방 교회는 동방 교회 안에서 이 책이 널리 읽히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가 사도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인정했고, 결국 바울이 이 책의 저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의문은 다시 제기되었고, 오늘날 이 책을 바울 서신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책의 기원과 관련된 다른 특징들처럼,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 또한 불확실하다. 원저자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다(2:3-4). 회심 이후, 이전에 경험한 고난의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10:32-34)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5:12). 그들에 대한 박해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2:4).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작 연대를 60년대 중엽으로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해보인다.

### 2. 정경성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초기에 이견이 있었으며, 이는 당연히 이 책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2세기 말 서방 교회에서 히브리서는 무라토리 정경(Muratorian Canon)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방 교회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책은 여덟 편의 바울 서신과 함께 중요한 초기 파피루스 사본(P46)에 포함되어 있었다(주후200년경). 이 책의 명백한 정통성과 동방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결국 서방에서도 히브리서의 정경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다.

### 3. 주요 주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준다는 점이다. 앞선 시대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계시하셨다(1:1-2).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의 탁월성을 주장하며, 성령이 조명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구약을 근거로 삼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3:7, 9:8, 10:15). 이를 위해 저자는 구약을 인용한 뒤 몇몇 핵심 단어를 설명하며, 문맥으로부터 그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낸다(2:8-9, 8:13, 10:8-10).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자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신자들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것은 구약에서 기대했지만, 결코 성취하지 못했던 현실이다. 히브리서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와 만물의 회복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은 하늘로 높이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제들에 기초하여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으며, 붙들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 4. 개요

- I. 머리말: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신 아들(1:1-4)
- II.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아들(1:5-2:18)
  - A. 높임받은 왕적 메시아이신 아들(1:5-14)
  - B. 경고: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라(2:1-4)
  - C. 예수와 인류의 운명(2:5-18)
- III.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아들(3:1-5:10)
  - A. 예수와 모세(3:1-6)
  - B. 경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3:7-4:13)
  - C.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는 대제사장 예수(4:14-5:10)
- IV. 핵심 해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아들(5:11-10:39)
  - A. 서론적 권면: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5:11-6:20)
  - B.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7:1-28)
  - C. 하늘에 계신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8:1-13)
  - D. 하늘 성도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9:1-28)
  - E. 해설의 결론: 옛 제사와 새 제사의 대조(10:1-18)
  - F. 결론적 권면: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10:19-39)
- V. 분투 속에서 필요한 믿음과 인내(11:1-12:13)
  - A.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11:1-40)
  - B. 아버지의 징계인 고난을 견디라(12:1-13)
- VI. 마지막 경고와 공동체의 삶에 관한 지침(12:14-13:21)
  - A. 마지막 경고: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12:14-29)
  - B. 공동체의 삶에 관한 지침(13:1-21)
- VII. 맺음말: 마무리 인사(13:22-25)

# 01

수요일

##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1-14

새찬송가 200장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 7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 8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암송**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119:103)



## 1~14절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의로우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의로우신 뜻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편은 1~6절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7~14절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전성과 고귀함이 인생에 주는 유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부(1~6절)는 일반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후반부(7~14절)는 특별계시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주신 만물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음과 감사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혀주며(롬1:19~20),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히9:26)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람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딤후3:15~17). 그렇기에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유익을 어느 때에 체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02

목요일

##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1-9

새찬송가 67장

-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쁨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말씀 암송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시 45:17)



## 1~9절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시편 전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왕이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낭송하였기에 출정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단 전쟁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극복하며, 승리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신정시(神政詩)로 분류합니다.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와 주권 가운데 죄와 악을 멸하시는, 영원한 의와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로서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살전5:16~18, 약5:13~14). 또한 기도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렘29:7, 약5:15~16),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계심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경험하였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03

금요일

##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1:1-13

새찬송가 86장

-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 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 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 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 8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 9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 10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 11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 12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 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 암송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 28:7)



## 1~13절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20편과 짝을 이루는 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부르는 개선시(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하심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승리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으로 영원하신 의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주심에 대한 감사로, 8~12절은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13절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창35:3, 시50:15, 86:7, 나1:7).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힘이 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 04

토요일

##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 22:1-31

새찬송가 292장

- 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 2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 4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 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나이다
- 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 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 10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 11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 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 13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 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 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
-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 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 19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20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 21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 25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갹으리이다
-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 29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 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 31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말씀 암송**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시22:22)



## 1-21절 탄원과 기도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심정이 된 시인은 탄원을 하게 된다. 그가 탄원하는 이유는 4-5절에서 세 번이나 사용되는 '의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인의 신뢰는 역사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즉 과거에 조상을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시인이 구원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탄원의 동기가 된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지 않으시기를 요청한다. 이런 요청을 하는 동기는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다.

## 22-31절 찬양과 감사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의 완료 시제는 시인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이다. 비록 기도의 서두에서는 자신이 버림 받았다고 하는 시작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실한 수행은 고난 받는 자의 신실함을 요구한다.



일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 05

주일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 23:1-6

새찬송가 570장

-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다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1-4절 거룩한 목자

4개절은 시인의 목자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목자와 왕의 비유를 사용하여 목자이신 여호와 안에서 성도가 누릴 복락을 아름답게 노래한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시인은 그의 양떼에 속한 한 마리의 양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 5-6절 하나님의 집에서 드릴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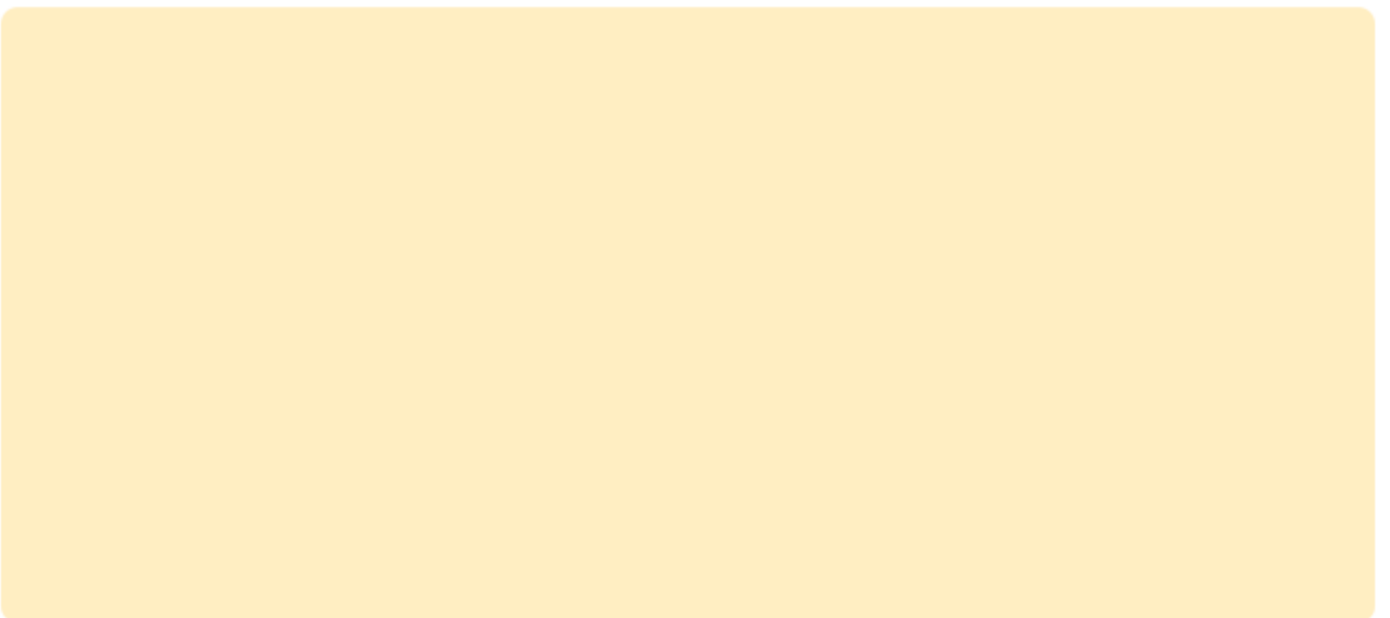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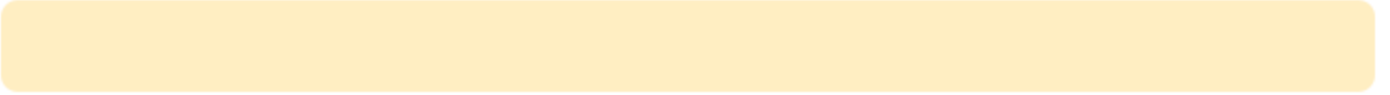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5절에서 목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현재와 미래의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바뀐다. '내 원수'에 해당하는 분사적 복수형은 그들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목전에서'에 해당하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축제가 자신을 적대시하며 괴롭혔던 원수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이 의미하는 바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상에 차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수들이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 본문에서는 시인이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님을 나타낸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라는 말은 시인이 매우 귀한 자로 대접받았음을 묘사한다. 이러한 보호와 인도와 공급, 원수로부터의 보호와 승리를 체험한 시인은 최종적으로 그가 영원히 거하게 될 '여호와와 그의 집'을 언급하며 그곳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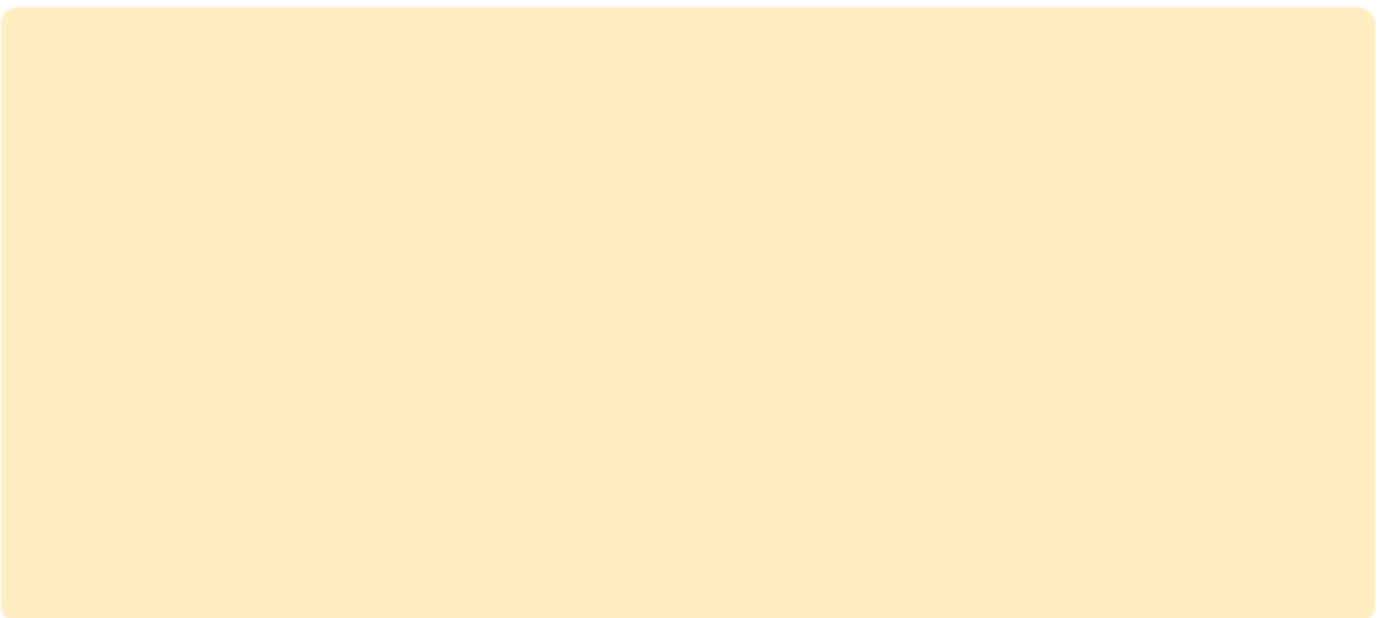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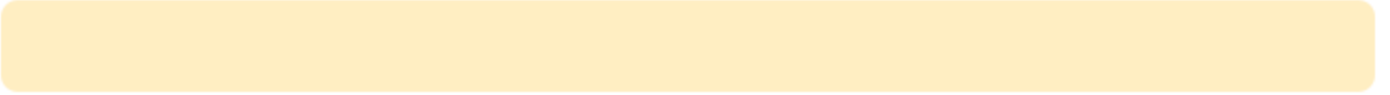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06

월요일

##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 24:1-10

새찬송가 78장

-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 3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말씀 암송**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시24:10)



## 1-6절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

1,2절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주권을 선포한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에게서 인간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예배자들은 왕권의 상징인 '여호와의 산'에 가까이 나아갔다. 이 산은 여호와를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된 곳을 의미하며, 시온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를 자'와 '설 자'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자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복을 받고'라는 말과 '의를 얻으리니'라는 말이 동의대구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는 의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배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7-10절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의 '문'은 일차적으로 성소의 문들을 가리킨다. 문을 의인화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궁으로 들어가시는 행위를 상징한다거나 전쟁에서 언약궤가 귀환하는 이미지를 담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 07

화요일

##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 25:1-22

새찬송가 430장

- 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 2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 3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 8 여호와여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 9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 10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 14 여호와여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 16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 17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 18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 19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 22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 1-7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기도와 신뢰에 대한 말을 결합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태도로서 응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을 담았다. '우러러보나이다'라는 손을 드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는 용어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고 고백한다. 이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함으로 그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8-14절 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는데, 그 형식과 내용은 찬양형식이다. 시인의 확신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시인은 자신이 간구한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 15-21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돌아간다. 그의 소망과 기다림은 여호와를 향해서 고정된 시선으로 묘사되며, 이 소망 역시 경험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는 환난과 원수들에 둘러싸여 하나님께서 그의 외로움과 곤고함을 종결지어 주시길만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 08

수요일

##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 26:1-12

새찬송가 263장

-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 2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 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 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앓지 아니하였사오니 감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 5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앓지 아니하리이다
- 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 7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 8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 9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 10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 11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 12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말씀 암송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26:11)



##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공언했고(18:23),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했으며(19:13), 의로운 삶을 참다운 삶의 원리로 삼고(15:2), 그러한 삶에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다(101:2). 여기서 다윗은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길게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한다. 그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앞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25:7, 18). 그러나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의 용서와, 다윗이 자신은 진실하며(25:21) 흠이 없다고(1-7, 11절) 공언할 수 있도록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 주시라고 간구한다(1-3절).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어떻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왔는지 보여준다(4-7절).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과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자신이 설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다(8-12절).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 09

목요일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 27: 1-14

새찬송가 336장

- 1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 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 12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 13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 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 암송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27:4)



##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윗은 그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며(1-6절), 그분께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간구한다(7-12절). 이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는 맹세로 시를 마친다(13-14절). 이 시에는 앞의 시편들을 떠올리게 하는 주제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4-6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12절), 신뢰 고백(13-14절) 등.

### 1절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은 시편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원천이자(43:3, 44:3),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안위의 상징이다(4:6, 97:11, 112:4).



내가 가장 두려워(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큰  
지를 돌아보고 살펴봅시다.

# 10

금요일

##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 28:1-9

새찬송가 88장

-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 2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 3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 4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 5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6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 7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 8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말씀 암송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시28:7)



##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다'

다윗은 여기서 악인들의 위협을 받는 한 개인으로서 말하고 있다(1-7절).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시를 끝맺는다(8-9절). 이는 다윗이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1-7절에서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의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나타내는 6-9절은 앞의 27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두 시편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공통된 주제로는, '여호와 부름(1절, 27:7), 다윗의 반석이신 하나님(1절, 27:5),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1절, 27:9),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2,6절, 27:7),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2절, 27:4-6), 다윗의 도움이자 강한 요새이신 하나님(7-8절, 27:1,9), 기쁨의 찬양(7절, 27:6) 등이 있다. 그러나 27편과 달리 이 시는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포함한다(4-5절).



'기도'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역울함으로 기도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 11

토요일

##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 29: 1-11

새찬송가 560장

-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 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 3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은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 5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 6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 7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 8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 9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갱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 암송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29:11)



##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이 시는 거대한 물결, 위풍당당한 백향목, 광대한 사막에서도 나타나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한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천둥이 울리는 듯한 그분의 음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18회, '여호와의 소리'는 7회 나온다. 이 시는 28:1의 다윗의 간구(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에 대한 응답이다. 또한 이 시가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는 북쪽의 헤르몬 산(6절-시론)으로부터 남쪽의 가데스 광야(8절)까지 거의 가나안 땅의 전역을 아우른다.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 12

주일

##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 30:1-12

새찬송가 8장

-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 2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  
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 4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 7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  
가 근심하였나이다
- 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 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 10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말씀 암송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시편 30:4)



##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시편 30편은 표제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할 때 부른 성전 낙성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통치 기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 봉헌 한 것입니다

시편 30:1-3절은 다윗이 여호와를 높이는 이유를 세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주님,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셋째,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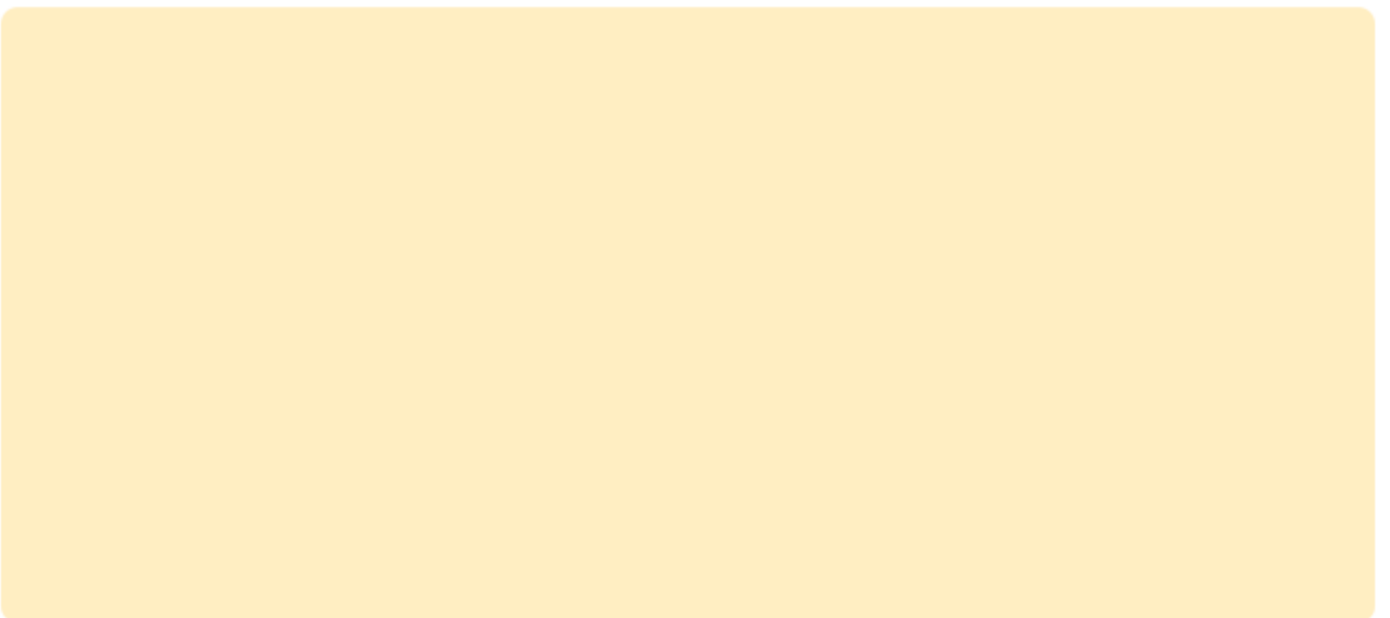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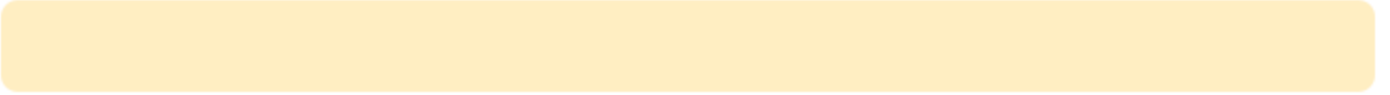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찾아 예배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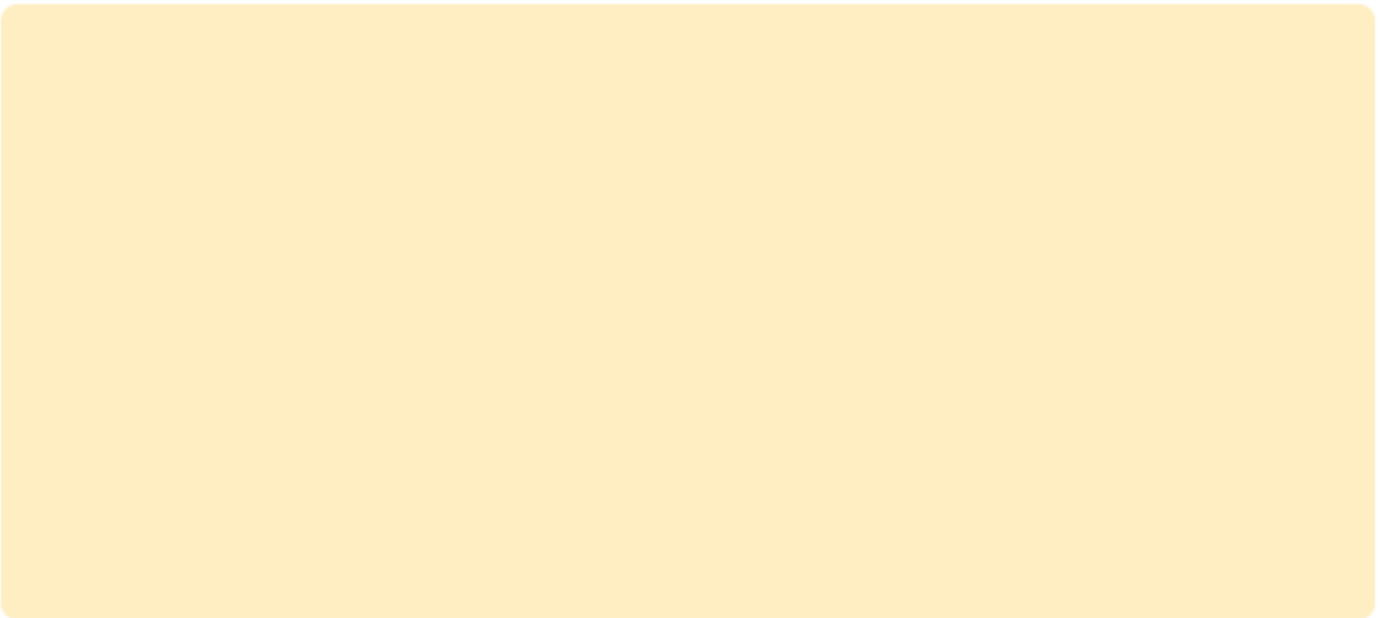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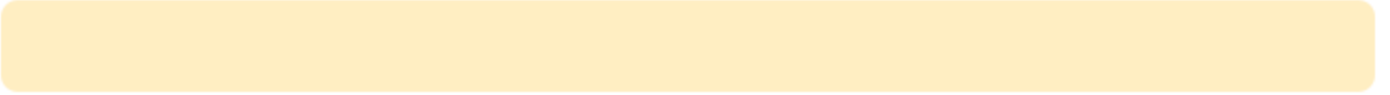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3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13

월요일

##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시 31:1-24

새찬송가 401장

-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 2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 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 4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 6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 7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 8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 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 10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 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 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 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 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 17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 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 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 20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 21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 22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 23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 24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암송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31:3)



## 본문설명

31편의 상황도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1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17절) 먼저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약간 창피한 감정이나 내적인 당혹스러움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로 공적으로 망신 당하는 일이나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강하게 말하면 수치, 치욕, 굴욕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4절)달라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당신은 치욕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 14

화요일

##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 32:1-11

새찬송가 184장

-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 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 암송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시편32:7)



## 본문설명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총 13번의 마스크 표제가 등장하는데 '지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교훈이 담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간결하게 선포합니다 (1,2) 시편 32편은 시편 1편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10-11).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어떻게 용서해주셨는지 묵상하세요

# 15

수요일

##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시 33:1-22

새찬송가 453장

-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 4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어 세상에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
- 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7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 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 11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 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 18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 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말씀 암송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33:2)



## 본문설명

시편 33편은 여느 시편들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고, 또 개인 기도나 찬송이라기 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와 찬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수장절과 같은 절기에 여러 형식으로 불려진 찬송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1절의 내용이 시편 32편 마지막 절인 11절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두 시가 본래 하나의 연결된 시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 찬양의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번째 찬양의 이유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천지창조의 주제와 관련됩니다. 6~9절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지가 찬양의 두번째 이유라고 밝힙니다. 10~12절이 여기 해당합니다. 세번째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어"라는 말인데, 온 세상을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13~15절이 여기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세상에는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16~19절이 여기 해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 16

목요일

##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시 34:1-22

새찬송가 308장

-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 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9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11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 12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 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 16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 17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 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
-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 20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 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 22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암송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34:17)



## 본문설명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였다가 죽을 위기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삼상21:10-15)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하였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던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 17

금요일

##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 35:1-28

새찬송가 348장

-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 2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 3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 4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 5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와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 6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와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 7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 8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 9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 10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 11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 12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 13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 14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 15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아니하도다
- 16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 17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 18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19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 20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 21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 22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 23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 2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 25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 26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 27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 2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 암송**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35:9)



## 본문설명

다윗의 시라는 것만 밝히고 있는 35편의 시는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 쫓겨다니는 비참한 심정을 표현하는 비탄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구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 18

토요일

##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 36:1-12

새찬송가 279장

- 1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 2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 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 4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 5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 6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 7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 8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 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 10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 11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 12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말씀 암송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36:10)



## 본문설명

본 시는 다윗의 저작이라는 것과 지휘자의 인도로 연주된 제의 음악이라는 사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여호와와 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이끌고 제시하는 왕의 신분임을 자각하고 권면하는 지혜의 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억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지낸 적은 없습니까?

# 19

주일

##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 37:1-40

새찬송가 359장

-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 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 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 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엿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 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 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 17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 18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 19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 20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 21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 22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 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엿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 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 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 28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 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 30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 31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 32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 33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34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 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 36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기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 37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 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 3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 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말씀 암송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37:5-6)



## 본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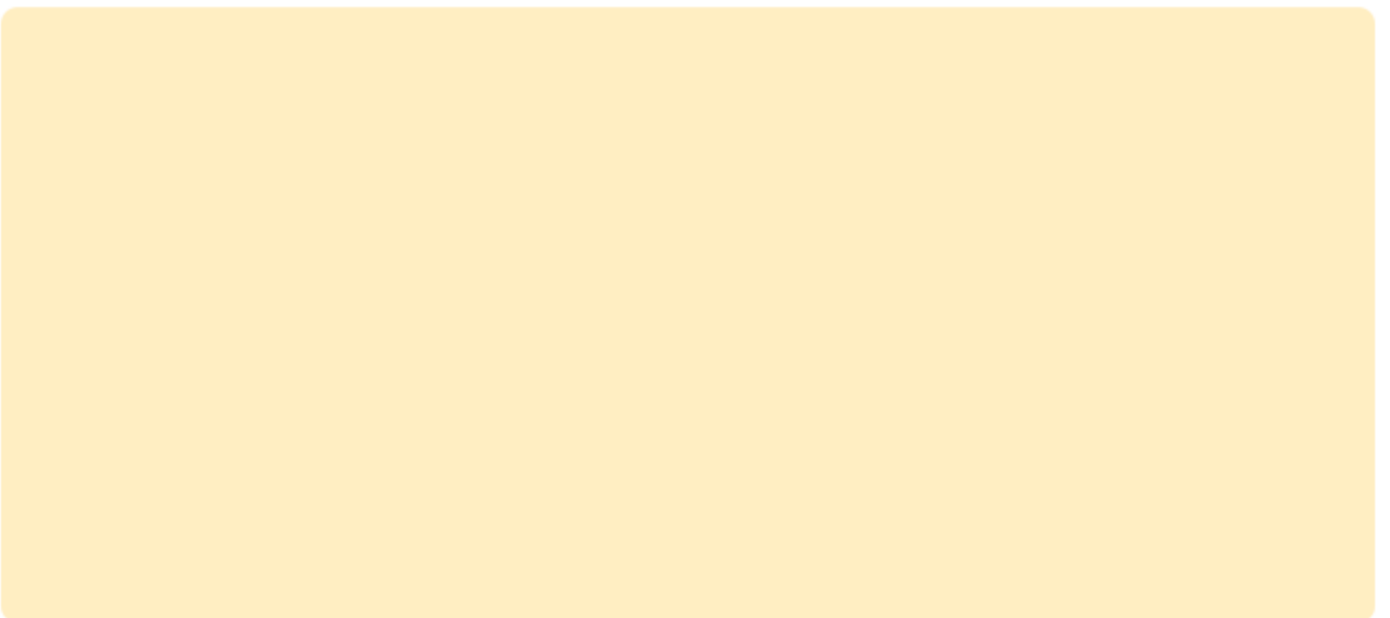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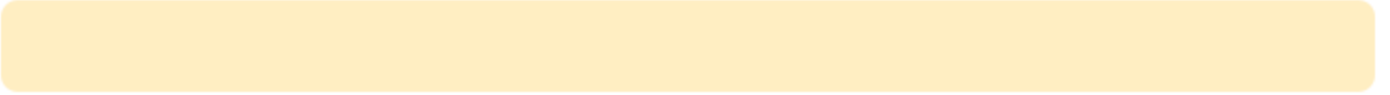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본 시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종말론적 시각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바른 삶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다윗의 노년에 쓴 시로 추정합니다. 다윗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답관체 형식을 취함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편36편의 후속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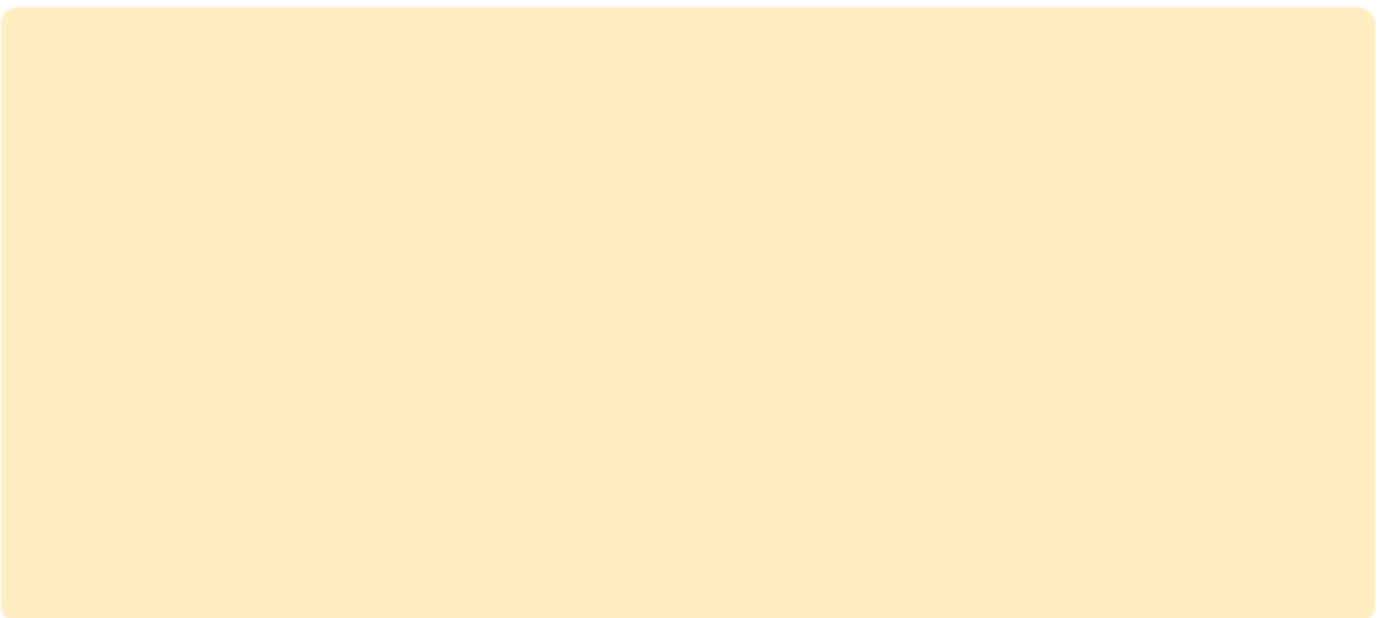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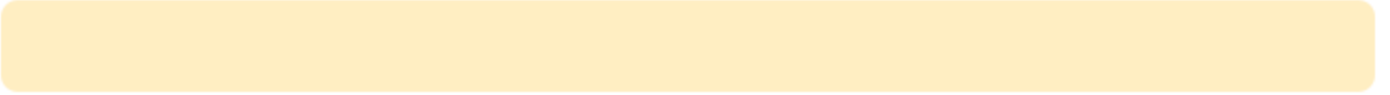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20

월요일

##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 38:1-22

새찬송가 394장

- 1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 2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 3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 6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 7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 8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 9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 10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 11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 12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 13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 14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 15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 16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 17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 18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 19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 20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 21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 22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말씀 암송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시 38:9)



## 본문설명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시편 기자를 멀리하고 그의 생명을 찾는 자가 음모를 꾸미나 그는 말 못 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이 자신을 보며 기뻐할까 두려워하며,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께 죄를 아뢰며,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본 시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보고 나서 모든 시도가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혜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합니까?

# 21

화요일

##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1-13

새찬송가 324장

-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 2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 8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 9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 10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 11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 12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 13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 본명설명

시편 기자는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자신이 잠잠하니 근심이 더하다며,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 주시길 여호와께 구합니다.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나 소망은 주님께 있다며, 징벌을 옮기시고 자신을 죄에서 건져 용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자기 성찰과 기도가 혼합된 애가입니다. 특히 이 시는 다윗이 오롯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서술한,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떠도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 22

수요일

##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 40:1-17

새찬송가 425장

-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 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 4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5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 6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 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 8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 9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 10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 11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 12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 13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14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 15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 16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 17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말씀 암송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40:4)



## 본문설명

시편 기자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수렁에서 그를 끌어 올려 반석 위에 두십니다. 새노래를 그의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며 주님 뜻을 행하고, 의의 소식과 주님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행했던 중요한 행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다림은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3~4절에 반복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표현 역시 다윗의 기다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 기다림은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셨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곧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외칩니다.



믿음을 가진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23

목요일

##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시 41:1-13

새찬송가 455장

-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 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 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 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 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 8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 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 10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 11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 12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말씀 암송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시 41:11)



## 본문설명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니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고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보응하게 하시길 구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많이 겪었고 많은 시를 통해 증거하고 있지만,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악함 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병든 다윗 앞에서만 그를 걱정하는 척하고, 뒤돌아서서는 다윗에 대한 악담을 퍼뜨립니다. 다윗이 어서 죽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약해진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할망정 더 큰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비겁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의 단면을 여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도를 해하는 악인들은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붙드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악행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24

금요일

##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1:1-3

새찬송가 96장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 암송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베드로전서 1:25)



## 시대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각 시대 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 때 항상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알아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나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25

토요일

## 그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남은

히 1:4-14

새찬송가 134장

-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 6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 12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 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 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 암송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린도전서 1:18)



## 십자가의 죽음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원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갖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 내용은 바로 "어찌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천사들 보다 더 높을 수 있냐며" 빨리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잘 것 없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아름다운 죽음이자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조차 없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이자 사랑의 완성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름답고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까?

# 26

주일

##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히 2:1-4

새찬송가 497장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 암송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마음을 네게 보이리라(야고보서 2:18)



## 신앙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1절을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었고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유익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는 것에서 떠나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구원의 길을 과감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신앙의 전문가가 됩시다.

신앙의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고진 훈련을 참아내고 인고의 시간을 쌓아가듯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 날마다 겸손하게 그리고 삶에서 실전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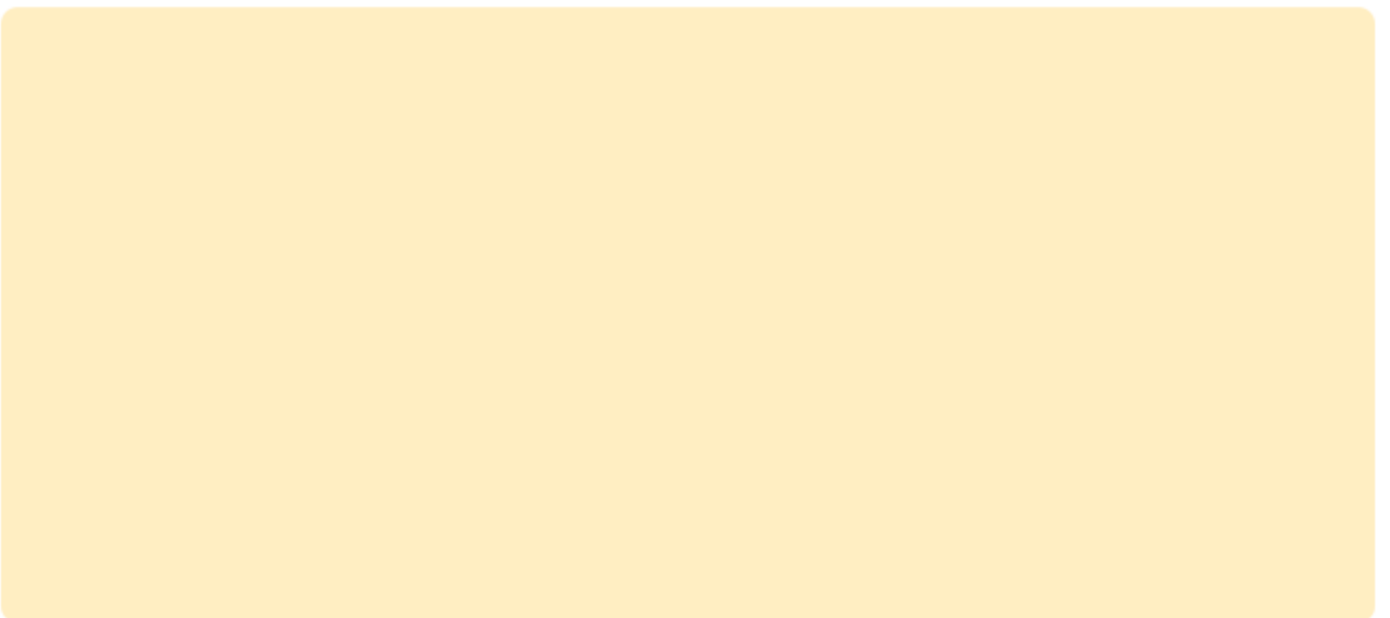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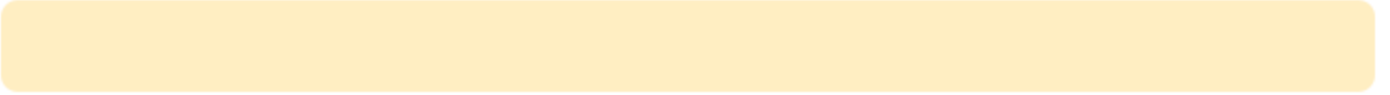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들은 것에만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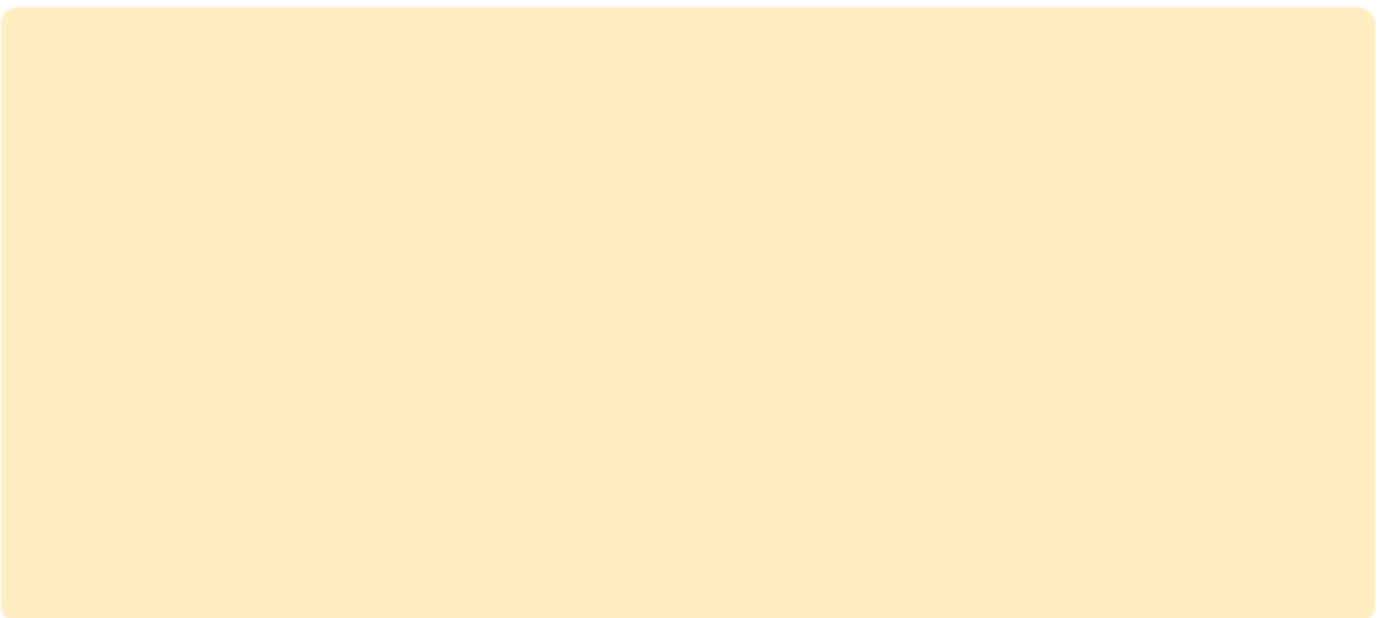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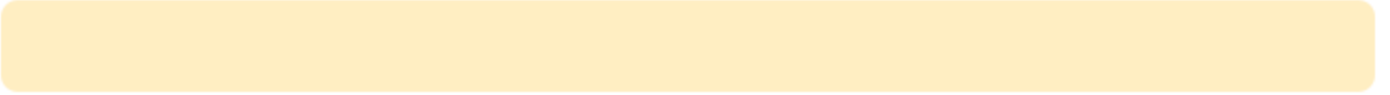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삶에서 어떤 것을 실천 하고 있습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27

월요일

##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히 2:5-18

새찬송가 391장

- 5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 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7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 8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 10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 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밋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 16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 암송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6-8)



##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7절은 시편 8:5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잠깐동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신 이유는 한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육신이 이미 오래전에 의미가 희미해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서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환영 받지 못하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늘 감사와 은혜가 고백 되어야 합니다.

##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격합시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지 않고 있는 강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드러지는 모든 예배에 목숨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에 전심으로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 28

화요일

##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3:1-6

새찬송가 623장

-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 3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 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 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므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 암송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14절)



## 모든 성도는 나의 거룩한 형제

당시 성도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신앙저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고, 유아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나의 형제라고 불러야 합니다.

###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더 나아가 한 형제로 모인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불리 행하면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나곤 합니다. 반면 고민하면 할수록 역경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 승리를 맛보려면 그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역과 탁월함, 풍요로움, 권위를 깊이 생각할 때 세상의 광풍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듯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 때 반석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품어야 할 연약한 형제는 누구입니까?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냅니까?

# 29

수요일

##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 3:7-19

새찬송가 249장

- 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 암송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로마서 2장 5절)



##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배를 주리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패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극치이며 주제넘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 30

목요일

##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 4:1-11

새찬송가 510장

-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 4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 5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 6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 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 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 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디도서 1장 2절)



##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한 '장차'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즉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관한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했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안식의 올바른 의미

우리는 안식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되지만 폐지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고 승계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영혼의 기쁨을 얻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도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 31

금요일

##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 4:12-16

새찬송가 214장

-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  
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 암송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 복음,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진리

본문에서 '믿는 도리'를 말합니다. 이는 계시에 기초하여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그리스도의 구원, 즉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지켜줄 이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잡아 결코 놓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지도 못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지도 못할 이 땅의 재물이나 육신의 아름다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도록 힘써야 합니다.

##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험과 고난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며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모르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 나아가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고 있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3. 3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박예일

김요한 송주원

손아론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